

4 인터뷰 – 2021 현대문학 신인추천 시 부문 당선자 여세실 동문(국어국문학 16)



여세실 동문은 시간을 정해놓고 시를 쓰기도 하지만 친구와 전화하면서 쓸 때가 더 많다고 한다.

(사진=이수현 기자)

“시, 마음에 솔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유경민 기자 gmni0313@khu.ac.kr

소외된 삶에 주목하고 그것에 명료한 표현을 부여함으로써 사명을 다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문은 경희의 젊은 문학가들로부터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짚어보려 합니다. 2021년 현대문학 신인추천 시 부문 당선자 여세실 동문(국어국문학 16)을 만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써의 시’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사람으로 배우는 시

미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던 어린 시절 그녀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림에 대한 열정을 내려놓은 이후 그녀의 마음을 끈 것은 시였습니다. “시를 쓰는 게 그림을 그리는 거랑 되게 비슷한 작업이더라고요” 그림과 더불어 글쓰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어느 순간 시 안에서 이미지를 그려

내는 일과 그림을 그리는 것이 비슷한 작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림을 닮은 시의 매력을 알게 된 여동문은 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에 진학하고 우리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화된 교육 과정을 거쳤음에도 시가 배울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짜여있는 수업을 듣는 것보다 친구들과 글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들이 그녀에게는 더 큰 가르침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동문은 사람을 통해 얻는 새로운 자극들이 시 창작에 도움을 주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경희유치원에서의 국가 근로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아이들을 보며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튈지 모르고, 장난꾸러기고, 솔직하고,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면모를 아이들은 너무도 솔직하게 보여준다”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훨씬

더 편안하고 깊이 있게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아동가족학과를 복수 전공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인, 실패의 끝을 밀고 나가는 사람

여동문은 ‘망가지고 무너진 것들의 이후’를 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무너지고 망가진 채로도 계속해서 살아남아 가는 삶들에 주목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혐오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타자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타자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그녀는 “시인이란 실패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도 자꾸 실패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도 계속 실패하지만, 그 실패의 끝을 밀고 나가는 사

람들이 시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조금만 진지해지거나 솔직하면 편하되는 SNS, 매스미디어와 달리 내 마음에 솔직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일방적인 소통이라기보다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여백을 채우는 행위 같다”며 “쪼그려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 하나, 어떤 구석을 자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여동

문은 시를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시안에 들어와서 틈을 메꿔가기를 바랍니다. “시를 쓰면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굉장히 쉽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정말 어렵다는 걸 느낀 후에는, 자신의 시를 보고 누군가가 단 하루라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밀고 나가보자, 조금 더 살아보자’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으면 한다”는 소박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일상과 시의 균형

여동문은 자기 삶과 시를 쓰는 일이 분리되지 않고 잘 어우러져서 오래도록 밀접하게 달아 있기를 바랍니다. 시에 몰두해서 일상이 어그러졌던 경험을 떠올리며 후배들에

게는 “일상은 가볍게, 시를 쓸 때는 좀 더 촘촘한 밀도로 호흡을 조절했으면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투고해서 등단하는 방법 말고도 독립 출판을 하는 방법도 있다”며 “겁내지 말고 여러 분야와 협업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 시를 꾸려 봤으면 좋겠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일상과 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자기만의 견고한 시세계에 한 뼘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입니다.

여동문은 시간을 정해놓고 시를 쓰기도 하지만 친구와 전화하면서 쓸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자신의 통제하에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가 좀 더 자유롭게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끔 이상한 작업을 계속 주려고 하는 편”이라며 그녀만의 시 창작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는 “멀리 보기보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며 “첫 시집을 잘 준비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거는 시, 사람마다 자기한테 필요한 걸 꺼내 갈 수 있는 주머니 같은 시를 쓰고 싶다”며 “앞으로 나올 자신의 시집이 누군가에게는 오랜만에 본 친구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